"모든 공연 생애 마지막이라 생각"

첼로 거장 미샤 마이스키
5월 3일 광주문예회관 공연
자유 분방한 연주 스타일 유명
"아들·딸과 많이 연주하고 싶어"

첼로 거장인 미샤 마이스키의 공연 장면. /연합뉴스

"한국에 가는 건 언제나 너무 좋고, 딸 아이와 연주하는 것도 가능하면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팬데믹 이후 첫 한국 공연이 너무 기대됩니다."

한국을 자주 찾았던 첼로 거장 미샤 마이스키(74)는 최근 서면 인터뷰에서 5년 만의 내한을 앞둔 소감을 이같이 밝히고, "(내한이) 24번째인 것 같은데, 가장 그리웠던 건 한국의 관객이었다"고 밝혔다.

마이스키가 오는 5월 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피아니스트인 딸 릴리와 함께 리사이틀을 펼친다. 마이스키는 광주 공연 전인 29일에는 군산예술의전당, 5월 1일에는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갖는다.

라트비아 태생의 마이스키는 전설적인 첼로 거장 로스트로포비치와 피아티고르스키를 사사한 우리 시대의 대표 음악가다. 독특한 해석과 자유분방한 연주 스타일로 유명한 그는 1985년부터 도이체 그라모폰 전속 아티스트로서 35장이 넘는 앨범을 발매했다. 그는 2005년부터 딸 릴리(35), 아들 사샤(33·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 자주 무대에 서고 있다. 요즘에는 아들 막시밀리안(17·피아니스트)과도 연주한다.

"아이들과 함께 음악을 만드는 걸 항상 꿈꿔왔습니다. 다양한 공연에서 함께 연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에요. 이건 정말 멋진 일이죠. 앞으로도 아이들과 더 많이 연주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싶습니다."

내한 공연 1부에서는 클라라 슈만의 3개의 로망스,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을 연주한다. 원래 바이올린을 위해 작곡된 곡으로, 이번 무대에선 첼로를 위해 편곡한 버전으로 들려준다. 2부에선 브리튼 '첼로 소나타 C장조'와 피아졸라 '르 그랑 탱고'를 연주한다. 이 두 곡은 스승 로스트로포비치에게 헌정된 곡이기도 하다.

아직도 많은 꿈을 꾸고 있다는 그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오래 살지만, 젊게 죽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젊음을 유지하는 건 무척 중요하고, 바로 그게 차이를 만든다. 죽을 때까지 젊음을 유지하고, 주어진 시간이 많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가 여섯 명이고, 막내는 겨우 7살이다. 아이들이 모두 성장하는 것을 보고, 언젠가 손주까지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서는 모든 무대가 "하이라이트 공연"이라고 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이든 애정을 갖고 모든 걸 바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모든 공연을 생애 가장 중요한 공연이나 마지막 공연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무대에 오르는 모든 시간이 아주 특별한 순간이 됩니다."

마이스키의 인생은 그다지 순탄하지 않았다. 유대인인 그는 1965년 레닌그라드 필하모닉(현 상트페테르부르크 오케스트라)과 협연으로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얼마 후 첼로 대신 삽을 들어야 했다. 1969년에 누나가 이스라엘로 망명하자 노동형을 선고받고 강제수용소 생활을 했다.

전쟁과 팬데믹 등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음악가의 역할에 관해 묻자 그는 "클래식 음악이 세상을 구하거나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음악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폭력을 겪은 후나 끔찍한 상황에서 더 좋은 인간성을 기르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동네책방 '숨' 20일 김혜영 작가 북콘서트

'네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 저자

2016년 10월 드라마 제작 현장의 부당한 노동 행태를 고발하며 세상을 떠났던 고(故) 이한빛 피디. 이 피디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과 우리 사회 노동 현장의 부조리를 생각하게 했다.

이 피디의 어머니 김혜영 씨가 이 땅에 다시는 아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펴낸 에세이가 있다. 바로 '네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후마니타스) 책은 누구나 노동자이거나 사회 구성원이기에 감지할 수 있는 슬픔 너머,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한번쯤 생각해 보게 한다.

김혜영 작가의 북콘서트가 동네책방 '숨'(광주시 광산구 수완로 74번길 11-8)에서 열린다. 오는 20일 오후 7시에서 열리는 이번 북콘서트는 남은 시간 엄마로 살아갈 저자가 쌓은 각고의 기록을 담고 있다. 저자는 중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했으며 지난 2020년 안곡중 교장으로 정년퇴임했다.

한편 이진숙 숨 대표는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신뢰와 힘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으며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나주박물관 행복학습센터 문화교실 개관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화수)이 올해 행복학습센터 문화교실을 연다.

(사)국립나주박물관후원회(이사장 이순옥)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행복학습센터 문화교실은 시민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도심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했다.

올해 프로그램은 '박물관에서 배우는 한지공예'<사진>와 '박물관이 들썩들썩, 숟가락 난타' 2개 과정. 한지공예는 7월까지 매주 목·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작품활동을 통해 전통 공예를 배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숟가락난타는 팬플루트 일상에서 쓰이는 도구를 활용해 몸과 마음으로 즐기는 생활음악 프로그램이다. 오는 5월~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한편 국립나주박물관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나주시 반남면의 행복학습센터로 지정돼 성인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나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1-330-7822. /박성천 기자 skypark@

전문가 7인이 들려주는 미술시장·작품위작·컬렉션…

광주시립미술관 아카데미 강좌
27일 손영옥 평론가 첫 강의

정준모 감독

이태호 교수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2022 미술관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 4월부터 강의를 시작한다.

미술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강좌의 주제는 '즐거운 미술관 활용법'으로 10월까지 7차례 매월 문화가 있는 날(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2시) 광주시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대면 강좌로 열린다

'도시 감성을 풍요롭게, 예술의 창의성을 나누는 미술관'을 비전으로 하는 미술관 아카데미 강좌는 시민에게 미술과 인문학, 문화예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강의에서는 동서양 미술사부터 작품위작, 공공미술, 미술작품 컬렉션, 미술시장, 미술 아카이브 등을 비롯해 미술관 안과 밖의 다양한 미술 이야기를 전문가 7인이 들려준다.

첫 강의는 27일 열리는 손영옥(저널리스트·미술평론가)의 '거리로 나온 미술관'이다. 이어 '미술 아카이브의 가치'(김달진자료박물관장 김달진·5월), '다시 모이는 한국 미술작품'(전시기획자 및 평론가 정준모·6월),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인가'(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이태호·7월), '위작 제대로 밝히기'(한국미술과학연구소장 최명윤·8월), '나는 미술투자가 좋다'(미술평론가 박정수·9월), '시대를 훔친 미술'(미술사가 이진숙·10월) 등 대중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로 구성했다.

60명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매달 강좌가 시작되기 2주전에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스카 후보 이승준 감독, '조국 사태' 다큐 공개

'그대가 조국' 전주영화제 상영후 다음달 개봉

세월호 참사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으로 한국 다큐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던 이승준 감독이 '조국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이 다음 달 공개된다.

제작사 켈빈클레인프로젝트는 이 감독이 연출한 다큐 '그대가 조국'을 다음 달 1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최초로 상영한 이후 정식 개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대가 조국'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명부터 사퇴까지 67일간의 이야기를 담았다.

제작사는 "정의를 잃어버린 검찰이 무참한 사냥을 벌이던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지를 다룬다. 그리고 망각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방향을 뒤트는 오래된 권력의 초상, 개혁에 대한 저항과 검찰의 칼날이 과연 우리에게 향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고 소개했다.

이 감독은 "이 영화는 '조국 사태'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언론과 검찰 권력들이 덧씌운 프레임 그리고 지워버린 질문과 방향에 대한 이야기"라며 "이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를 복기하고자 한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제목은 누구나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검찰 수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영어 제목 'The Red Herring'(붉은 청어)은 '중요한 것에서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이 감독은 세월호 참사 현장을 담은 29분짜리 단편 다큐 '부재의 기억'으로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올랐고, 뉴욕국제다큐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